

협회에서는 지금

농림장관 조찬 간담회

○...지난 6월 18일 남정학 전무는 농어민신문사가 마련한 '김성훈 농림부장관 취임 100일 조찬간담회'에 참석, 생약농업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수입엑스제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인한 농가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제약회사등 대량 소비업체들에서의 국산한약재 의무소비량을 규정하는 등 최소한의 국내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강구를 호소했다.

수급조절위 존폐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생협은 최근 26개 수급조절품목의 완전 개방론 대두와 함께 수급조절

위 존폐여부가 도마위에 오를 것에 대비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생협은 의견서를 통해 "식품원료나 원료의약품 액기스제 또는 '보따리 물건'으로 대량 유입되는 수입산이 시중에서 약재로 전용유통됨으로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과 농가에 미치는 타격을 감안할 때 수급조절품목운영제도의 존속은 국내 생약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재정운영위 회의

○...기존의 안정기금심의위원회 대신 각도 대표로 구성 발족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첫회의가 지난 6

월23일 오후 2시 협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역할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사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정운영위의 활동범위가 설정될 예정이다.

생약연구위원 새 구성

○...한국생약협회는 생약연구위 활성화를 위해 연구위원을 과거 5명에서 6명으로 구성하고 오는 15일 16시 협회회의실에서 첫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생약연구위원은 다음과 같다.

▲안덕균(경희대 한의대 본초학 교수) ▲성낙술(농

진청 작물시험장 특용작물 개발연구실장) ▲이송득(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장) ▲이영중(경원대 한의대학장) ▲이현용(강원대 농대 식품공학과 교수) ▲조원대(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병해진단연구실장)

농업회의의소 회원가입

○...생협은 최근 한국농업회의소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한국농업회의소는 농업계의 의견을 종합·조정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내외 경제단체와 상호 협조함으로써 농민의 권익향상과 농촌진흥에 기여하고자 50여개 농민관련 단체를 주축으로 설립됐다.

인사

「任」

△서울 중랑구공판장장 박규남 △충북 옥천군 공판장장 김철(5월6일부) △전북 군산시 공판장장 전창현(5월28일부) △경기도 양주군 공판장장 김석남 △전북 익산시 공판장장 정종국(6월1일부) △서울 용산구 공판장장 이계춘(6월8일부) △전북 군산시 사무소장 윤영환(6월29일부)

「免」

△경기도 양주군 사무소장 송상중 △경기도 성남시 공판장장 이계춘 △전북 익산시 공판장장 강병길(6월1일부) △전북 전주시 익산구 사무소장 정진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사무소장 강이상(6월29일부)

내방

△안덕균 경희대 한의대 본초학 교수 △정형모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이문섭 부회장 △이지대 충북도지부장 △엄경섭 이사 △백문기 이사 △김수동 부산도지부장 △조병설 청양군 사무소장 △신현석 양평군 사무소장 △황성구 원주시 공판장장 △최원길 영암군 사무소장 △강삼석 김제시 사무소장 △신영달 영천시 공판장장 △이한승 제천시 사무소장

지부동정

부부동반 하계수련회

○...경남도지부(지부장 이영갑)는 7월 5일 남해 상주해수욕장에서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 부부동반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성한 이사 도지부장에

○...경북도지부는 지난 5

월 23일 영천에서 열린 도지부회의에서 배성한 이사를 도지부장으로 재선출했다.

전남도지부회의

○...전라남도지부(지부장 정형모)는 6월 15일 순천에서 도지부 정기모임을 갖고 IMF시대 국내 생약농업 활

로모색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전북도지부회의

○...전라북도지부(지부장 이승엽)는 6월 20일 전주에서 전북도지부 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도대표 재정운영위원회와 도매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추천됐다.

'98 하계 자원탐사

7월24~25일 1박2일 전남완도군 약산면

한국자원식물학회는 오는 7월24일부터 25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남완도군 약산면에서 「'98년도 하계 자원탐사」를 실시한다. 참가회비 5만원. 7월 15일까지 마감. 문의:02)272-3065

나도한마디

산과 들에 자생하는 나무, 풀, 꽃 중에는 관상용이나 나물로 활용하거나 신기한 효능을 갖고 있어 민간요법에 이용될 수 있는 약재들도 많다. 잘 활용만 한다면 무엇보다도 값지고 보배로운 자원이 아닐수 없다.

예를 들어 느릅나무를 경주지방에서는 '누룩나무'라고 부르는데 이 나무의 뿌리는 무엇보다도 부종이 나서 곪아 잘 낫지 않을 때 짓찧어 2~3일만 붙여주면 감쪽같이 고름이 빠지고 아

생약자원 소중함에 눈 돌릴때

무는 것을 볼 수 있다.

IMF정국속에서 실업률은 늘어가고 돈이 될만한 것이 없다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고품질의 생약자원을 개발한다면 생약재는 좋은 외화벌이 자원이 될 수도 있다.

꽃밭에도 화려한 외국산 보다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우리의 야생화를 심고 논밭둑에 흔한 약초들은 화분에 심어보자.

패랭이꽃, 둥글레, 지옥, 초롱남, 마타리등은 꽃밭에 심어주면 좋겠고 조팝나무, 느릅나무, 산봉숭아, 돌배나무는 울타리용으로 심어주면 어떨까. 보기도 좋고 생활속에서 민간요법으로도 활용할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수 없다.

이제 우리 생약자원의 소중함에 눈길을 돌릴때다.

권순채 <경북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886>

이사람 남익현씨(56세, 생약재배농민)

토종 구할 수 있다면 천리길도 한달음에

충북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전형적인 우리네 농촌마을이다. 새벽닭이 울고 동창이 밝으면 논밭에 나가서 잡초와 싸우고 병충해 방제에 여념이 없는 남익현씨. 생약시세에는 아랑곳 없이 그저 농사를 천직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다. 그래선지 산야에 지천이던 자연생약초가 이젠 종자도 구하기 힘들만큼 멸종돼가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한다.

이처럼 사라져가는 우리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남씨는 월악산자락 3천평 밭에 생약시범포를 조성했다. 파종된 약초들은 석창포, 제니,반하,지모, 목단등 좀처럼 귀해 구하기 힘든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정성스레 돌본탓으로 소슬바람에 넘실대는 석창포잎이 마치 한쪽의 그림갈

다. 1천5백평 지모밭도 유난히 돌보이고 뒤질세라 반하밭도 잡초없이 깨끗이 정리돼 있다.

품귀다 싶은 토종 종자종근 종묘를 구할수 있는 곳이라면 천리길도 마다않고 찾아나설만큼 우리것 살리기에 열성적인 그는 늘 짜임새 있는 계획속에서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재배법에 대해 연구하기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울가을 목단(접목)육묘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대목과 눈목단을 준비중이며 진법, 위령선, 숙단, 고삼,천화분,천초,원지등도 재배할 육심으로 한창 시험재배에 분주하다.

약초밭을 뒤로하고 총총히 떠나오는데 햇빛에 그늘린 구릿빛 그의 얼굴이 새삼 건강해 보였다.

이지대(충청북도 지부장)

생약보를 구독할려면

지금까지는 회원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무료로 생약보를 보내드렸으나 발송비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부득이하게 98년 4월부터는 협회 중앙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 발송료 명목으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생약보를 보내드리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약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협회사무국(TEL:967-8133)으로 연락, 구독신청 하시기 바라며 연간발송료(1만원)도 함께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 구좌번호 : 우체국 010983-0006910 ●
- 예금주 : 한국생약협회 ●
- 문의전화 : 967-8133, 969-6875 ●